

지역 소식통

2024 완주 어린이날 대축제
5월 4일 군청 일원서 개최

완주군 어린이날 대축제가 올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찾아온다.

완주군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 군청 일원에서 환경마당, 놀이마당, 체험마당, 누에마당 등 4개의 마당을 마련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굿네이버스 전북지역 본부가 주관한다.

완주군은 군청 일대에 50개 부스를 마련하고, 에어바운스, 생태놀이터, 드론축구, 미니카레이싱, 오락실게임, 민속놀이, 바람개비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등의 놀이·체험 부스를 꾸민다. 메인무대에서는 유유키즈, 허신희 과학마술쇼, 유상홍 싸운드써커스, 풍물, 밴드,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된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참여기업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024년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이며, 각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로 총 12개소 내외의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상품 개발비, △판로 개척 지원, △홍보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판로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로 2024년부터 인건비 등의 직접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판로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사회경제적 중간지원조직(보건소 지하층,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내 상담실)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관할권 분쟁 조속한 종식을”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따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마무리 해야” 여론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날 28일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분쟁을 종식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견 군산시는 먼저 새만금 개발부터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관할을 결정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작년 7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던 때에 남북도로의 관할을 신청했는데, 결

국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만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면 행정 공백과 기반시설 공급이 늦어진다. 수변 도시에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설계 6개월, 행정절차 8개월, 공사 1년 등으로 2027년에 입주할 주민과 기업을 위해 신속한 관할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민정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안전이 상정되어 있고, 작년 현장방문 외에 6번의 심의까지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더 이상 동서도로의 관할결정을 지연시킬 빌미는 될 수 없다.

기본계획은 기업 친화적인 산업용지 확대가 주요 골자로, 대법원과 중앙분

쟁조정위원회에서 연계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지번이며, 대법원이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고 판시한 관할구도에 따르더라도 만경강으로 군산시와 확연한 경계를 이루며 김제와 연결하고 있어 김제 관할이 분명하다.

오히려 동서도로는 개통된지 3년이 넘었어도 CCTV, 화장실 하나 설치할 수 없고 로드킬 등 문제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하루빨리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며, “관할결정을 미룰수록 3개 시군의 분쟁도 봉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매립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성료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김제 모악산 금산사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부터 호남 4경의 하나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모악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된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초록빛 자연 속

에서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주제로 아름다운 선율과 감성으로 모악산을 가득 채우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6년간 개최돼온 모악산축제를 새롭게 리브링해 개최된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모악산의 싱그러움 분위기를 만끽하며 다양한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인기 가수 정동하, 김수찬, 손예지, 육종완밴드, 강혜연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무대를 선보였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로 운영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플라마켓에서는 김제 생산단체 등이 직접 재배한 우수 지역 농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20%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전국 근대5종대회 잇따라 유치

실업팀 창단 이후 두각... 학생연맹·실업연맹 연이어 개최

근대5종 실업팀을 창단한 완주군이 전국 근대5종 대회 유치가 잇따라 성공했다.

완주군은 제26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와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근대5종 전국대회가 완주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우선,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군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

근대5종 꿈나무인 전국의 초, 중, 고, 대학생 선수들을 비롯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완주에 머물고 있다.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대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린다.

전국 16개 시도의 근대5종 선수를 비롯해 임원 등 300여 명이 완주를 찾을 예정이다.

근대5종은 육상, 수영, 펜싱, 승마, 사격의 5개 종목을 한 선수가 다 소화해야 하는 운동으로 각 경기가 분산돼 치러진다.

대회 본부가 꾸려진 우석대학교 운동장에서는 육상, 사격, 장애물 경기가 열리고삼례읍에 위치한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서는 펜싱, 소양면에 위치한 전북체육고에서는 수영경기가 열린다.

특히, 현재 완주에는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한국실업

연맹회장배 대회 관계자들도 사전 답사를 위해 다수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회가 펼쳐지는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식당과 숙박업소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유혜태 완주군수는 “스포츠마케팅에 주력한 결과 연이은 대회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1월 직장운동경기부로 근대5종 실업팀을 창단했다. 창단 직후부터 근대5종 회장배 대회와 아시아 선수권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는 지난 25일 6개 마을 52개 기관 및 단체장에게 생명존중 안심마을 현판 전달식을 추진했다.

김제시, ‘생명존중 안심마을’ 현판 전달식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북서 유일하게 선정

김제시는 지난 25일 생명을 존중하는 자살없는 건강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6개 마을 52개 기관 및 단체장에게 생명존중 안심마을 현판 전달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가 전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이번 현판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생명존중마을의 조성 목적은 읍면동 단위 내에서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근거기반 중심의 촘촘한 자살예방전략으로 자살예방 전망을 구축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보건요, 교육, 복지, 유통판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의 6개 영역이 참여하여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 5개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자살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

앞으로 시는 올해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 김제 전체 읍·면·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참여기관의 한 관계자는 “자살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목표한 것들부터 실천하고 타 기관과 적극 협력하며 생명사랑을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민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은 김제시보건소(063-540-2717),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542-13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행감위원장에 이주갑 의원 선임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지난 26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주갑 의원을 선임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6월 실시될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



치법’ 제 49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감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및 행정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완주군 행정사무 중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